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NE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70



70명의 열기, AI를 만나다- 골든클럽 마스터 클래스

AI를 주제로 뉴저지 힐튼 강의실에서 열린 골든클럽 주최 제3회 월례 마스터 클래스에는 70여 명이 몰려 AI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 AI가 이미 인간의 삶 전반을 바꾸고 있지만,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행사의 필요성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강의는 전자공학과 83학번 출신으로 벨연구소 연구원이며, 서울대 출신 젊은 동문 창업 네트워크 EDGE Committee와 가나 공화국 두뇌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양경호 박사가 맡았다. 그는 글쓰기·영상 제작·사업 기획·의료 상담·여행 준비 등 인간의 사고와 생산성을 확장시키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AI의 분야별 활용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교류로 시작해 양경호 박사의 활동에 관한 소개 후 식사로 시작됐고, 양 박사의 본 강연에 이어 회원들이 직접 사용한 AI관련 경험담을 나누며 서로 배움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챗GPT·코파일럿·제미니AI 설치를 도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양 박사는 “AI는 곁에 둘 수 있는 박식하고 인내심 있는 지적 조력자”이지만, 기본 상식에 기반한 정보 선별과 의료·신분·금융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회원들은 이날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다음 세미나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주영]

6/11 골든클럽 하이킹 & 역사탐방 미네와스카 호수 지역

이번 6월 행사는 하이킹과 역사 탐방을 겸해서 실시합니다.

미네와스카 주립공원에 도착 Minnewaska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빙하가 만든 청록색 호수, 절벽과 숲으로 둘러싸인 경관 및 Awosting Falls을 구경한 후 뉴욕의 뉴하이드파크에 위치한 미국 역사에 대조적인 인물인 루즈벨트 박물관과 밴더빌트 맨션을 둘러보고 오는 계획입니다.

- 일시: 6월 11일 (목)
- 오전 8시: 한양마트 출발 Flushing
- 오전 8시 45분: 한남체인 출발 Fort Lee, NJ
- 참가비 일인당 60불 (입장료, 점심식사 포함)
- 총진행: 이영범 부회장

7/9 골든클럽 마스터클래스 4 미국독립전쟁

- 강사: 이길주 교수
- 일시: 7월 9일 11시-2시
- 장소: Bergen Community College
(강의실 추후 공지)
- 회비: \$30 (점심포함)

지난 4월에 이길주 교수님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강의에 이어,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미국 독립전쟁의 과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과 변화를 늘 겪고 있는데, 그 출발선상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고 그 배경과 영향을 함께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7/16 골든클럽 7월 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7월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의 친지들의 동반도 환영합니다.

- 일시: 7월 2일 (목) 오전 11시
- 플러싱 버스 오전 8시: 한양마트 출발 Flushing
- 참가비 일인당 120불 (그린피, 디너 포함)
- 총진행: 김병순 사무총장

부음 (訃音)



고 권태전 (사대54) 선배님
께서 5월 중순에 플로리다에서 9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고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이후 뉴욕에서 memorial service를 가질 예정이며,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회원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27 가을 여행: 캐나다 단풍 투어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우리 골든클럽도 세월과 함께 연륜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에 섞여 서두르는 여행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안전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행사 패키지 대신 우리만의 전용 버스를 대절하여 우리 페이스에 맞춰 이동하고 식사하는 '맞춤형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번 캐나다 단풍 여행의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정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가을의 정점인 9월 말, 캐나다 동부의 화려한 단풍을 만끽하며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여행 개요

일정: 9월 말 (7박 8일 예정)
지역: 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
방식: 전용 버스 대절 (우리만의 여유로운 일정과 편안한 식사)
주요 내용: 단풍 명소 투어, 지역별 별미 시식 및 화합의 시간

■ 참가 신청 안내

이번 여행도 손대흥 회원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기한 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한: 6월 10일(일)까지
신청 방법: 단톡방 회신 또는 전화 신청 (646-342-2667)

■ 의견 수렴

일정이나 식사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AI (강연요약)

양경호 박사를 모시고 진행한 '일상생활 속의 AI'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한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AI와 우리의 일상 (AI in Everyday Life)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구글 맵,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 등 다양한 서비스 속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궁금한 점을 구글에 검색했지만, 이제는 '제미나이(Jaemin)' 같은 AI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스스로 실행하며 우리를 돕는 '똑똑한 개인 비서' 혹은 '도서관의 사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AI의 발전 속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AI 혁신은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사용자 경험(UX/UI)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음성이나 간단한 타이핑만으로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요 AI 기술 용어 정리

- 양 박사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AI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 에이전트 AI (Agent AI): 단순 대화를 넘어 회의 예약, 논문 작성, 여행 계획 등 사용자를 대신해 직접 행동하는 AI입니다.
 - 피지컬 AI (Physical AI):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물리적인 장치 내부에 탑재된 AI입니다. 예로 한국 식당에서 흔히 보는 서빙 로봇이 언급되었습니다.
 - 생성형 AI (Generative AI):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AI로, 챗GPT와 제미나이가 대표적입니다.
 - 멀티모달 AI (Multi-modal AI): 텍스트뿐만 아니라 목소리,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4. 실생활 활용 사례 및 유의점

AI는 이메일 작성 및 교정, 복잡한 일정 관리, 여행 계획 수립, 개



인 튜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양 박사는 한 회원의 실제 경험으로 IRS 세금 면제(501C3) 신청 과정을 AI의 도움을 받아 4주 만에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며, 법률이나 의료 상담에서도 큰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I 사용 시 주의할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 검증의 필요성: AI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래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 AI는 도구일 뿐이며,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과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 보안 주의: 비즈니스나 금융, 의료 기록을 업로드할 때는 개인정보와 계좌 번호 등을 가리거나 이름을 변경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향후 일정

AI는 우리 삶의 효율성을 수천 배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비록 유료 버전(월 10~20달러 선)이 정보 보존과 성능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골든클럽은 앞으로도 7월 미국 독립기념일 세미나(이길수 교수), 9월 경제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 공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 28일에 Split Rock Golf Club에서 열린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김병순 동창회장, 조달훈(장타), 김문언(챔피언), 김영덕(공로), 박기환 (메달리스트)

"뉴욕 한인의 목소리를 키운 50년, 권익 보호의 현장을 지켜온 우리들의 영원한 대변인"

박준구 (문리 65) 전 국제교류재단 이사· 유권자 등록 캠페인 본부 초대 이사를 만나다



조여름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6월, 골든 클럽(Golden Club)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직과 비즈니스, 그리고 한인 사회 봉사에 평생을 헌신해 온 박준구 선배님(문리 65)을 모셨습니다. 서울 토박이로서 느끼는 도시의 변천사부터 뉴욕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 발로 뛰었던 시절, 그리고 드라마 같은 가족사까지, 노신사의 연륜이 묻어나는 깊은 이야기를 지면에 담았습니다.

PART 1. 서울 토박이가 바라본 도시의 어제와 오늘

Q. 선배님, 최근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만에 마주한 고향 서울은 어떠셨나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인 2023년 초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서울은 정말 눈부시게 변합니다. 하지만 서울 토박이인 제 눈에는 아쉬움도 큼니다. 제가 남산 회현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일제강점기부터 자리를 지켜온 우리 집 마당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온 동네를 덮을 만큼 거대했던 고목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40층, 50층짜리 고층 빌딩 숲 사이에 갇혀 마치 장난감 나무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Q. 도시 계획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한국의 개발 방식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NYU에서 도시계획(Urban Planning)을 공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분야였지만, 우리 서울을 체계적으로 설계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파리 같은 유럽의 도시는 신 도시를 주변에 만들고 '오리지널 코어'인 구도심의 유적은 철저히 보존합니다. 반면 우리는 사대문 안의 소중한 유산들까지 너무 쉽게 허물고 모던하게만 바꾸려 합니다. 개인의 사유지라 해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옛것을 지켜야 하는데, 유적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을 지내고, 이후 한국의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로 일하며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코리아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매력 즉 soft power를 보존하고 알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PART 2. "권익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 - 뉴욕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되다

Q. 소호 빌리지 상인회부터 유권자 등록까지, 한인 사회 권익 보호에 앞장서신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LG 사표를 내고 NYU 공부를 병행하며 소호(Soho)에서 가족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뉴욕한인사회는 급격한 질적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소호 빌리지지역에도 200여개의 한인 가게가 성업중이었습니다. 자연 사건사고도 빈번했습니다만 마땅히 소수민족으로서 보호받을 정치적 울타리가 없었죠. 90년대 초반으로 기억되는데 인근 한인 여성이 운영하는 모자가게가 흑인 손님과의 갈등으로 한달 넘게 피켓 시위를 당하며 생업이 끊기는 걸 보았죠. 한인회에 연락해도 도움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재향군인회 등 지역 유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인은 돈만 벌고 커뮤니티에 기여가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절감했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소호빌리지 한인상인회'를 조직하고, 흡리스 급식 봉사와 지역경찰서와 유대 강화등을 시작으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했지요.

Q. 언어 장벽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한인들을 위해 '집단적 대항'도 불사하셨다고요.

당시 억울하게 공권력에 피해를 입는 유학생이나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이나 법집행관과의 마찰은 구타를 당함은 물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치명상을 입게됩니다. 저는 '반 아시아 폭력 저지위원회' 같은 청년 단체와 목사님들과 연계해 경찰서에 예고 없이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페디션드라이브로 부당한 의사를 전달했지요. 또한 핫라인을 만들어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공권력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집단적인 힘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Q. 특히 10년마다 돌아오는 '인구센서스'와 '유권자 등록'에 사활을 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수민족의 권익은 결국 '숫자'에서 나옵니다. 신분 문제로 조사를 피하던 한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1년을 장사도 제쳐두고 '센서스 추진위원회'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뉴욕일원 교회들과 각종 모임에 적극 홍보한 결과 뉴욕·뉴저지 한인 숫자가 공식적으로 폭증했고, 이는 곧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예산 배정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유권자 등록 센터'를 만들어 초대 이사장을 맡으며 우리 표의 힘을 정치권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인 표심이 시의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커졌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Q. 국제교류재단 이사 시절, 뉴욕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시킨 성과도 대단하셨지요.

뉴욕 일원의 명문 고등학교 교장단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유산에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가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하게 되었지요. 지금 MZ 세대들의 K 컬쳐가 세계적인 현상이 된것도 이런 민간 외교의 결실이 아닐까 싶어 뿌듯합니다.

PART 3. 뉴욕 지하철에서 만난 인연, 그리고 가족

Q. 선배님의 미국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이야기인데, 사모님과 만났던 날이 마치 영화 같다고 들었습니다.

허허,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과는 1975년 뉴욕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에 얼굴 정도는 알던 사이였는데, 낯선 미국 땅 지하철에서 다시 마주친 거죠. 당시 저는 미국에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신출내기였고, 아내는 캔자스에서 석사를 마치고 뉴욕에 막 정착했을 때였어요. 미국 생활이 서툴던 제게 아내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1979년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제 미국 생활 50년을 지탱해 준 가장 큰 복이었던 셈이죠.

Q. 두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버지로서 교육 철학이 있으셨다면요.

아들만 둘인데, 각각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의료 분야에서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전통을 이어주고 싶어 미국에서도 20년 넘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도 제사 때는 꼭 불렀지요. 정제



성 교육의 일환이었지만 자식 농사는 마음처럼만 되지는 않더군요(웃음). 며느리들이 각각 유대인과 스페인계라, 이제는 한국적 전통을 전수하기보다는 다국적인 문화를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PART 4. 골든 클럽, '외로움'을 넘어 '친밀함'으로

Q. 3년 반 전 사모님과 사별하신 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골든 클럽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한동안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된다는 것이 참 허탈하더군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인에게 무조건 잘하라는 것과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골든 클럽 멤버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몇몇 소그룹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서먹함을 깰 수 있는 2박 3일 정도의 짧은 리조트 휴양이나 취미별 소모임을 활성화해 보면 어떨까요?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AI를 활용해 설문 조사도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활동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안하자면 제가 평통회장이 되자마자 한인사회 몇 분을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한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준행회장님도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골든클럽이 한인사회에 잘 알려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든클럽이 친목을 다지면서 일년에 한번쯤은 한인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선배님께 '황혼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거창한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장어 요리에 소주 한잔 나누며 허물없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우리 골든 클럽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담정리: 김정필]



일출과 Earthrise 땅뜨기

조달훈 (사대66)

우리에게 해와 달은 잘 보이는 천체들이고, 지구는 ‘보면서도 보이지 않아’ 그냥 『땅』이라 부르다가, 서양문명의 영향을 받아 地球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가르치지 않았어도,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잤습니다. 역시 우리가 잇고 사는 것들 중에, 내자신 『태아적 애기였을 때에도 느낌과 생각이 있었음』입니다. 엄마와 의사소통을 하기 전, 뱃속에서 손 발짓을 시작했을 때, 엄마도 아는 단어가 별로 없었을 때. 애기웃은 물론 없고 엄마도 웃을 입은 동 마는 동 하던 시절,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 약간의 여유가 생겨 밤하늘을 쳐다보고, 수없이 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달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일기의 변화도 느끼게 되었겠지요. 옷도 시계도 달력도 없던 시절. ♡천동설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만들어 쓰기 훨씬 전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수천수만년이 흘러간 후, 지금부터 약 사백여년 전에, 갈릴레오라 불리는 이단아가 유리조각들을 조합, 망원경을 만들어 달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몇개의 천체들은 가까이 있고 위성도 가졌고, 먼 곳까지의 거리도 알아내고, 해는 달보다 사백배 정도 멀다는 것도 알아냈고

요즘은 아파트 하나에 “70억” 원 하는 시대니까, “사백”이라는 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처음 초등학교에 갔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엄마와 함께 학교운동장에 서있을 때, 둘 사이를 『지구와 달』 같다고 비유해보면, 『햇님』은 운동장 네개 정도의 까마득한 거리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데 숫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를 나타내는 중국글을 보면, 처음 세 개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데, 一, 二, 三, 넷 부터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거듭하여 급기야는 1968년 NASA 에서 자기네가 만든 Apollo 8 이 달에 가서 찍은 사진 하나에 Earthrise (떠오르는 지구? 지구뜨기?) 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하고, 지난 4월에는 Artemise II 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Earthset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곧, 달에 가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문제는 우리중 누구라도 달 표면에 서서 보면 Earthrise도, Earthset 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달을 도는 위성에서는 지구의 출몰이 보일수 있겠지만 달표면에서는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달에는 계수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날 보면서도 모르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안다고 쳐도 굉장합니다. 달 표면에 불거리가 별로 많지 않고 맨날 그 그림이 그 그림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을 볼 때는 언제나 달 표면에 그려진 그림이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초승달에는 그 자리에 햇빛이 들지 않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망원경을 이용하면 보입니다.

잠시 어려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왕자, 호기심 많은 왕자가 그 계수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하늘을 보면 지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가 달을 볼 때는, 그 왕자도 같이 마주봅니다. 왕자가 보기에 지구는 맨날 맨날 밤이나 낮이나. 같은 자리에. 수수 만년 무궁토록. 따라서 달에서는 Earthrise도 Earthset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어린왕자가 보기에, 지구는 매일 매일 자전을 삼십번 씩 하면서 하늘 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듯, 그 아이도 자기가 있는 곳, 달의 자전을 못 느끼겠지만, 우리는 달이 지구를 한달에 한번씩 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 “위성”에서의 하루라는 말은 해의 출몰을 따라 생긴다

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하루와 달에서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달의 계수나무 쪽은 언제나 지구를 보고 있어서 한 달 중 반은 해를 받아 밝고, 온도도 계속 올라가 섭시 120도를 넘고, 다른 반달 Half-Month, 또는 14.5일 동안에는 온도가 계속 내려가 영하 170도 아래가 됩니다. 지구와 같이 극 지방에서는 반년동안 햇빛을 받고 다른 반년동안은 어둡겠지요.

달의 하늘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반사하거나 굴절되는 일이 없어 언제나 캄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늘은 까맣고 별들은 많이 보이지만 깜빡이는 별은 없으며, 무지개도, 오로라도, 천둥번개도 없고, 바로 옆에서 왕자가 외롭다고 외쳐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뒤쪽에 호기심이 별로 없는 왕자가 살고 있다면, 그 님에게는 지구가 전혀 보이지 않겠지요.

회원 명단 (108명 / 2026-5-25)

강교숙	김병순	민준기	신두식	이승준	정수일	한태진 한용희 하용웅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상만	박기환	신진식	이 준	조달훈	
강영선	김승호	박상원	신응남	이대연	조승자	
계동휘	김영덕	박준구	오순문	이대영	정준영	
고애자	김영만	박희병	오용호	이영범	정해민	
곽선섭	김우영	배상규	오인석	이용대	조상근	
권문웅	김익성	성기로	우규환	이위곤	주상선	
권정덕	김정필	손갑수	육재희	이전구	주재양	
홍선경	김창수	손경택	윤선구	이종대	진봉일	
권영대	김충정	손대홍	윤상영	이종석	천병수	
권태전	김치갑	남종현	윤재욱	이준행	천종화	
금영천	김태일	송근숙	윤종숙	이행순	최병우	
김광수	김한중	송옥길	윤현남	이홍빈	최준희	
김광현	김현중	송현자	이강홍	임도혁	최한용	
김동건	노승만	송학린	이민제	임호순	최학주	
김문경	노용면	송혜순	이상무	전문준	한민우	
김문언	문 선	송혜	이상원	정도현	한용오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74명 / \$7,400 / 2026-5-25

강에드	김영덕	배상규	우규환	이행순	천병수
곽선섭	김영만	성기로	육재희	이홍빈	최준희
권문웅	김익성	손경택	윤선구	임도혁	최한용
권정덕	김정필	손대홍	윤종숙	임호순	문 선
홍선경	김충정	남종현	이강홍	윤상영	한태진
계동휘	김태일	손갑수	이대연	정해민	한용희
권영대	김한중	송근숙	이상무	전문준	홍종만
금영천	김현중	송학린	이상원	정준영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송혜순	이승준	조달훈	홍정표
김상만	박기환	신진식	이영범	조승자	(2027)
김문경	박상원	오순문	이위곤	조상근	윤종숙
김문언	박준구	오용호	이종대	주상선	
김병순	박희병	오인석	이종석	진봉일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26명 / \$11,800 2026-5-25)

강에드 300	김영만 500	오용호 500	정해민 2400
계동휘 300	김정필 300	우규환 200	최준희 300
금영천 300	김한중 300	이강홍 500	최한용 500
권정덕 500	성기로 400	이상원 200	홍종만 1000
김광현 300	손경택 900	이종대 200	
김문경 300	신진식 500	이행순 300	
김영덕 100	오순문 200	전문준 5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23명 참가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75명 참가
4월	2일(목)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23일(목)	골프대회 (Sunset Valley 27명참석)
5월	7일(목)	Masterclass 3강 AI 비서 만들기
	28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6월	11일(목)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7월	16일(목)	골프대회 Walkill
	9일(목)	Masterclass 미국 독립 전쟁
	23일(목)	골프대회 Meadows
8월	12일수	피크닉 (Alpine Pavillion)
	20일(목)	골프대회
9월	10일(목)	Masterclass -Financial Literacy
	24일(목)	골프대회
	9/27-10/4	Canada 여행
10월	15일(목)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1월		Florida 골프여행
3월	6일	2027 신년교례

6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문경 (약대61) 한민우 (의대69)
 김우영 (상대60)
 손갑수 (약대 59)
 송현자 (가족)
 신응남 (농대70)
 이민제 (공대70)
 최병우 (공대67)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 든 클 럽 회 비 납 부 양 식

성명과 바뀐 내용만 적어주세요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연회비 \$100
단과대	학과	입학연도	후원금(\$)
전화번호	이메일		입회비 \$200
주소			